

기아 오토랜드 광주, 3년 연속 50만대 생산 돌파

스포티지·셀토스 잘 나가고 EV5 신차 효과에 신형 셀토스도 기대

지난해 생산량 52만 2268대…내수 17만 3662·수출 34만 8606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미국발 관세 타격을 극복하고 주력 차종의 탄탄한 수요에 힘입어 '3년 연속 연간 생산 50만대'를 돌파했다.

스포티지와 셀토스가 내수·수출 시장에서 꾸준히 '효자' 역할을 하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전용 전기차 EV5의 본격 가세가 생산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은 총 52만 2268대로 집계됐다. 내수 17만 3662대, 수출 34만 8606대로 전년(51만 3782대) 대비 1.7% 증가했다.

고객이 금리 선택…최고 연 4.30% 광주은행 '셀렉트챌린지적금' 출시

가입 연도 동일한 떠 고객 혜택도

광주은행은 6일 "새해를 맞아 기입 연도의 출생띠와 동일한 떠에 태어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셀렉트챌린지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셀렉트챌린지적금은 상품 기입 연도의 출생띠와 같은 고객들에게 행운금리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조건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적금 상품으로, 고객의 거래 패턴과 금융 이용 성향을 반영해 공통 우대금리와 선택 우대금리를 결합한 구조로 설계됐다.

공통 우대금리는 기입 연도의 떠와 동일한 떠에 출생한 고객에게 연 0.5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선택 우대금리는 실속형·소비형·단골형·도전형 등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유형에 따라

이로써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2023~2025년 3년 연속 50만대 생산을 기록했으며 이번 실적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역대 생산량 중 네 번째로 높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22만 5933대)와 셀토스(15만 9466대)가 생산의 양축을 이뤘다. 두 차종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한 수요를 이어가며 내수와 수출을 고르게 뒷받침했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첫 전기차 EV5(1만 4714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전동화 제품군 확대 효과를 더했다. EV5 생산을 시작으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내연기관 중심 공장에서 미

래차 생산 기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밖에도 봉고 트럭(7만 5770대)이 안정적인 물량을 유지했고, 쏘울은 지난해 9월 생산 종료에도 4만 2355대의 생산 실적을 냈다.

기아자동차가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19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공장의 총 누적 생산 대수는 1032만대에 이르며, 이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지역 경제·산업 구조를 떠받쳐 온 핵심 축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수치다.

세계 완성차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3년 연속 50만대 생산을 유지했다는 점도 광주 공장이 안정적인 생산 거점으로 활발한 가능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쏘울 생산 중단 이후 스포티지·셀토스 중심의 생산 구조로 빠르게 재편하고 신

규 전기차 EV5를 안착시킨 점은 생산 유연성과 대응력을 보여주는 백미로 꼽힌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향후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공장으로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생산 중인 스포티지와 셀토스는 신차 등록 현황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스포티지는 7만 5113대가, 셀토스는 5만 6369대가 등록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글로벌 인기 차종인 셀토스 신차 양산을 앞두고 있다"며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와 함께 EV5도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드는 해인 만큼 작년 성과를 밀어올 삼아 생산과 품질에서 더 성장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청소년 88% 게임 즐긴다

비이용 42% 게임방송 시청

콘텐츠진흥원 1만9000명 조사

국내 초·중·고교생 10명 중 9명이 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 중 절반 가까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게임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6일 전국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1만9000명을 대상으로 비디오 게임 이용 행태를 조사한 '2025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교생) 중 게임을 이용하는 게임 이용군은 88.6%, 비이용자군은 11.4%로 나타났다.

비이용자군 비율은 2022년 17.3%, 2023년 13.6%, 2024년 12.5%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게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적응적 게임 이용군 비율은 14%로 전년 대비 1.6%p 증가했고,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용하는 문제적 게임이용군 비율도 3.2%로 0.2%p 늘었다.

비이용자군 비율은 남학생 5.7%, 여학생 17.3%로 크게 차이가 났으며, 초등학교(7.1%)에서 중학교(11.2%), 고등학교(15.7%)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에는 게임 관련 인터넷 방송 시청률도 포함됐다. 게임 이용 청소년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게임 관련 방송을 '거의 매일' 시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셀렉트챌린지적금' 1호 고객으로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22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예술의전당에서 '2026년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와 '사랑나눔콘서트'를 연다"고 5일 밝혔다.

22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6년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는 지역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목표를 달성을 예상이다.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 경제살리기 정책플랫폼에 참여하는 16개 협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광주·전남 지역 기관장, 정치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같은날 오후 4시에는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사랑나눔콘서트'가 진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500여명을 초청해 경영 활동으로 지친 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문화 예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경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신년인사회와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광주·전남의 힘찬 재도약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237억 규모 지원사업·입찰 정보

GICON 홈페이지 통해 공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올해 진행할 23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및 입찰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공개된 정보는 총 100건으로 지원사업 43건(136억원), 입찰 정보 57건(101억원) 수준이다. 지원사업 안내에는 지원 분야와 대상, 규모가 모두 포함됐으며, 입찰 정보는 발주 시기, 예산, 계약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ICON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 기업과 단체들의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월 연간 사업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실제 사업 공고보다 정보를 먼저 제공해 지역 기업들의 사업계획 사전 준비를 돋보이게 분석된다.

GICON은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들이 향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신청 전에 최종 공고문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투증권 "한은,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7월 중 0.025P 인하 예상"

연초 환율·물가 등 동결 여전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7월에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지숙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근거였던 원/달러 환율, 부동산 시장 등 금융 불균형, 인플레이션 압력, 경기 개선세 등의 여건이 연초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환율의 경우 최근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오르고 있어 한은의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로 높은 수준이다.

최 연구원은 일단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신성환 위원 소수의견 및 인하 가이던스(사전 지침) 3인이 유지되며 의결문 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문구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 고 말했다.

다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2분기경 1% 후반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성장 및 물가

측면에서 2~3분기경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된 후 신임 총재 때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11일까지

주방용품·침구류 할인전

카펫 등 최대 70% 할인

광주신세계는 "새해를 맞아 오는 11일까지 지하 1층 연결통로에서 인기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주방용품·침구류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포컬렉션'은 할인기간 동안 거실 카페트와 러그, 쿠션 등을 최대 70% 할인한다. 1만원대 할매트와 허리쿠션 등 가성비 품목부터 5만원을 넘는 거실용 리그 등 생활용품까지 대폭 할인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다. <사진>

'엔스티'는 겨울철 추위에 적합한 구스이불 등 침구류를 선보인다. 엔스티는 할인전을 통해 '고밀도 치자볍이'를 최대 40% 할인하며, 양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엔스티 양면 스프레드'도 만나볼 수 있다.

'빌레로이앤보흐'와 'VBC까사'는 신년맞이 힙파티 등 순남 초대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할인전을 연다.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권혁원 광주신세계 생활팀장은 "새해를 맞아 고객 수요가 많은 주방·침구류 할인전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에 구포컬렉션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할인가에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은 광주전남본부 "설 특별자금 300억 공급"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자금 성수기인 설을 맞아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을 돋보이게 분석된다.

지원대상은 광주와 전남 13개 시·군(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소재 업체에 대해 관내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이다.

지원규모는 3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00억원) 이내,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 이내다.

이번 지원은 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 이내 비

례 배분)를 연 1.00%의 저금리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동산업, 유통업, 약국(한국약국)업, 수의업 등 대출제외 업종과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우량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 지급, 원자재 대금 결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525.48 (+67.69)

↓ 코스닥 955.97 (-1.53)

↑ 금리(국고채 3년) 2.948 (+0.015)

↑ 환율(US D) 1445.50 (+1.70)
<오후 4시 35분 기준>